12일 Market Index
코스피 2857.00 (-34.35)
코스닥 850.37 (-2.05)
금리(국고채 3년) 3.101 (-0.062)
환율(원·달러) 1375.80 (+3.00)

metro® 경제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4년 7월 15일 월요일

자정능력 상실 유튜브 방심위 권한 강화로 적극 대처를 02

"구글·퀄컴 등과 협력… '인간 중심 AI' 고도화 집중"

삼성전자 '살롱 드 AI'

모바일 AI 사용자 삶의 질 일반인 보다 1.4배 더 높아 파트너사 개방형 협업 통해 책임감 있는 AI 개발 속도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스마트폰 시대를 연 삼성전자가 인간 중심의 AI 개발에 집중해 곧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것을 예고했다. 〈관련기사 4면〉

삼성전자는 지난 11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살롱 드 AI' 행사를 열고 런던대학교 골드스미스 경영연구소 등과 진행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이 자리에서 구글, 퀄컴 등 파트너사와 함께 ▲인간 중심의 AI 대중화 ▲열린 협업 기반의 모바일 AI 혁신 ▲하이브리드 AI의 중요성과 책임감 있는 AI 개발에 대해 논의했다.

피격에도 주먹 불끈 쥔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선거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13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유세 현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른쪽 귀에 총알이 스치는 부상만 입었을 뿐 무사하다. 집회에 참석했던 군중 가운데 1명이 사망하고, 다른 2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총격범도 비밀 경호원들에 의해 사살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른쪽 귀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불끈 쥔 주먹을 흔들며 "싸우자"고 외치고 있다. AP/뉴시스

◆AI 사용자 일상 변화시켜

삼성전자 MX사업부 개발실장 최원준 부사장은 "모바일 AI 역시 사용자 중심으로 개발이 되고, 사용자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인간 중심의 AI를 최우선으로 더욱 혁신적인 AI 기술을 다양한 제품을 통해 선보이겠다"고 약속했다.

삼성전자는 '모바일 AI가 사용자 삶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진행한 연구 결과를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런던대 등과 공동 연구를 진행했다.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5개 국가의 5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AI가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 등을 물었다. 연구 결과는 모바일 AI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의 삶의 질이 모바일 AI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보다 높게 평가할 확률이 약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진행한 골드스미스 경영연구소 크리스 브라우어 박사는 "과거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AI라고 하면 노래를 추천해 주고 철자를 고쳐 주는 등 일차원적이고 단순한 작업 역할을 생각했지만, 이제는 자기 계발, 건강, 생산성, 창의성 등 인간의 삶 모든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잠재력을 발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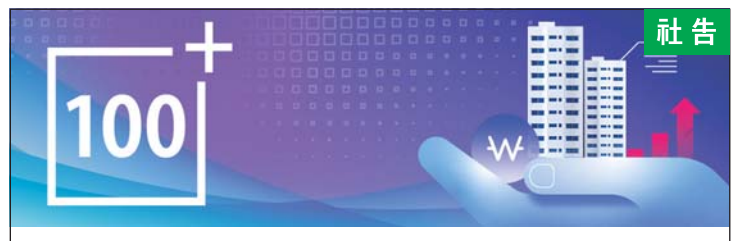
김대현 삼성 리서치 글로벌 AI센터장(부사장)은 "AI는 더 이상 갖고 있으면 '단지 좋은 것'이 아닌 사용자의 일상에서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글 등 파트너 협업 '모바일 AI 혁신' 확대

삼성전자는 이날 구글 등 파트너와의 개방형 협업을 통한 모바일 AI 혁신을 강조했다.

/프랑스(파리)=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저성장·양극화 기조 속 차원이 다른 재테크 전략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가 오는 7월 17일(수) 오후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를 개최합니다.

저성장·양극화 기조 속에 금융·자산시장의 위기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끝없이 최고가를 경신중인 미국 증시와 달리 국내 증시는 커진 덩치와 달리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부동산시장은 여전히 살얼음판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모든 세대의 미래 삶에 불안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재테크 전략을 궁리해야 할 때입니다.

메트로경제는 '밸류업 K-마켓, 100세시대 안전망'을 주제로 당면한 고민을 풀어보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가치투자의 대가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이사회 의장,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 정재훈 KB부동산 박사, 김세환 KB증권 리서치본부 팀장 등 자산관리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중장년층부터 청년층까지 모두가 만족하는 '자산 밸류업' 전략을 모색 합니다.

- 행사명 : '2024 100세플러스 포럼'(시즌 2)
- 주 제 : 밸류업 K-마켓, 100세시대 안전망
- 일 시 : 7월17일(수) 14:00~17:00(VIP 티타임 13:30~ 14:00)
- 장 소 :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의 및 등록 : '2024 100세플러스포럼' 사무국 (02)721-9826, (www.metroseoul.co.kr),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metro

韓 금리인하 관건은 '가계대출·고환율·집값'

통방문에 인하검토 문구 추가 부동산·부채 등 위험요인 많아 연내 금리인하는 어려울 듯

한국은행(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최근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한 가운데 금리인하 시그널이 나와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시장에선 고환율과 집값안정, 가계부채 등이 화두로 떠올라 연내 금리인하 단행이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 11일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12회 연속 기준금리를 3.50%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금통위원 만장일치 결정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은 없었다. 또한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문(통방문)을 통해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다.

통방문에는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검토해 할 것'이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3개월 후 인하 가능성을 언급한 금통위원은 기존 1명에 2명으로 늘어나 금리 인하가 가까워졌음을 예고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통위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5월에는 인하 깜빡이를 켠 상황이 아니라 금리 인하 준비를 위해 차선을 바꿀지 고민하는 상태였지만, 이제는 차선을 바꾸고 적절한 시기에 방향을 전환할 준비를 하는 상황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재의 발언을 두고 시장에선 10월 금리인하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금리인한 시점이 더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주요 경제 지표는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대출과, 고환율, 집값 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14일 금융위원회의 '2024년 6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4조4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2월과 3월에는 각각 1조9000억원, 4조9000억원 줄어들며 2개월 연속 감소했지만 4월과 5월 각각 4조1000억원, 5조3000억원 늘어나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정책성 대출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급증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 아파트값이 16주 연속 오르며 5년10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정부의 정책 상품으로 수요층 심리에 변화가 생겨 '내 집 마련' 수요가 다시 부활했다는 분석이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주담대 대출 수요를 더 늘리게 될 경우 부동산 과열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한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근접하면서 외환시장이 불안한 상황이다. 지난달 한·일 재무장관의 구두 개입 이후 상승세가 주춤했지만 한은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보다 먼저 금리를 인하한다면 환율이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 원·달러 환율의 절대적인 수준이 지금보다는 내려야 한은도 안심하고 금리인하를 결정 할 수 있다.

이 총재는 "외환시장, 수도권 부동산, 가계부채 움직임 등 앞에서 달려오는 위험 요인이 많아 언제 방향 전환을 할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며 "물가와 금융안정을 고려할 때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고, 이 기대가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버스티비 yap TV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윤상현 "대권주자들이 출마해 네거티브 치열" /사진 뉴시스

▲ 與선관위, 원희룡·한동훈에 '주의·시정명령' 제재 확정

▲ 트럼프 테러에 尹 "끔찍한 정치폭력… 쾌유 기원"

▲ 與, 탄핵 청문회 겨냥 "민주당 무리수 … 국민 분노 유발"

▲ 이재명, 친명마케팅은 "친국민·친민주당 표현한 것" /사진 뉴시스

▲ 野, 증언 거부 이종섭·임성근 등 고발 … 국회 모욕 고발